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5년도 제27차 회의

1. 일 자 2005년 12월 22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박 승 의 장 (총재)
김 태 동 위 원
이 성 태 위 원 (부총재)
김 종 창 위 원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이 상 용 감사 정 방 우 부총재보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이 영 균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조 기 준 기획국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양 정 균 금융안정분석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김 수 호 금융시장국장 이 광 주 국제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광 준 공보실장
이 용 회 금융안정분석국 분석총괄팀장
강 길 순 금융안정분석국 은행분석1팀장
6. 회의경과

<의안 제46호 — 2006년 1/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담당 부총재보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원활화를 위하여 2006년 1/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2005년 4/4분기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 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폭설 피해를 입은 호남지역에 대해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배정 유보 금액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피해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광주전남, 전북, 목포본부 등과 협의를 거쳐 피해상황에 따라 배정 유보된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6년 1/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9조 6천억원으로 정한다.

〈의안 제47호 — 2006년 1/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

(1) 담당 부총재보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1/4분기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를 2005년 4/4분기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 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2003년 3/4분기부터 2005년 3/4분기까지 약 2년 동안 유동성조절대출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 대출 한도를 계속 5조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유동성조절대출 한도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3/4분기부터 5조원으로 한도를 확대한 것은 2003년 6월 조흥은행 파업 당시 한도가 3조원에 불과하여 RP 매입과 함께 총 4조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 이를 경험으로 한도를 좀 더 여유 있게 책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6년 1/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조절대출한도를
5조원으로 정한다.